

외식업 창업 자금 및 점포 특성이 창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 지역 창업자를 중심으로 -

임 현 철¹

광주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The Effect of Initial Expenses for Food Service Business and Shop Characteristics on the Motive of Starting Business - Focused on the Founders in Daegu and Gyeongbuk Areas -

Hyun-Cheol Lim¹

Dept. of Food & Nutri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the effect of initial expenses for food service business and shop characteristics on the motive of starting business through questionnaires(from April to May, 2008).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hypothesis, 'the motive of starting business depends on its initial expenses',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of good commercial area was .015 and that of retirement was .020,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 values were 2,889 and 2.734 each, which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y 0.001. Second, for the hypothesis, 'the motive of starting business depends on shop characteristics',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of the accomplishment desire, the future stability and the retirement were .011, .009, and .025 each,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 values were 2,616, 3.034 and 3.177 each,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 by .001. Lastly, initial expenses for business and shop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al variables on the motive of starting business. This study shows the problem of starting business with no extra funds. It is important to reflect the opinions of founders about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law for them to concentrate on business. The founders should research for menu and systems and be aware of the tendency of the industry for sure.

Key words : restaurant business, founder, initial expenses, shop characteristics, motive of starting business, accomplishment desire, future stability, retirement.

I. 서 론

최근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외부적인 환경 변화의 불확실성과 내부적인 경쟁 우위의 확보를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기업의 외부적인 환경요인은 글로벌화와 지역화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규모의 효율성 증가, 표준화의 확대, 진입 장벽의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여건과 외식산업 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다. 사회 전반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에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화되었으며,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은 업종과 규모를 막론하고 생존을 위한 여러가지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송기옥 2006). 또,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외식업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외식식품경제 2006). 기업의 경영자나 신규 창업자들로 하여금 외식 브랜드에 대한 경쟁 우위(Competitive Advantage)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경영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전병길 등 2003).

외식업 시장은 규모에 비해 시스템화나 경영 관리가 취약하고 개인 업소나 중소 규모 업체의 경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개인 외식 창업의 대부분은 창업 절차나 사업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출점하고, 영세법인의 신규 외식 창업의 경우 투자 경제성이나 사업성 검토가 미흡하여 시장 경쟁력을 상실하는 창업자들의 사업 성공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박대섭 2003). 외식업은 다양함이 혼재되어 있는 종합산업으로 형태가 다른 업소의 장점들을 모아서 창업을 하더라도 많은 위험성을 안고 아이템의 선정이나 창업 자금 및 점포 특성 성격에 따라 창업 동기 결정은 쉽지 않다. 외환 위기 이후 기업구조 조정 및 인력 감축 등 기업의 경영 전략의 근본적 변화와 맞물려 조기 퇴직이 일반화되면서 개인 차원의 창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창업 경험이나 업종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가맹 본부의 경영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으로 인해 가맹점 창업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외식 창업시장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직자를 중심으로 외식 창업에 대한 높은 열기로 수많은 외식 점포들이 창업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박대섭·신충섭 2006). 외식 창업 성공률이 낮은 것은 창업이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이টে이기도 하지만 창업자들의 무계획적인 사업으로 시스템의 미개발, 기술력의 부재, 인재의 미 육성 등으로 장기적 안목보다는 눈앞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본

다(장대성 1998). 외식업 신규 창업자의 증가와 외식 업종·업태의 다양화, 글로벌화로 인해 외식 창업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창업에 대한 효과적인 기준이 없고 예비 창업자들의 넘치는 자신감이 실패의 원인이며 창업 성공이 어려워지고 있다. 신규 창업자들이 성공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시장조사나 점포 가격, 메뉴 선정, 서비스 형태, 입지, 일반적인 정보도 없이 창업하는 경향이 속출하고 있다(강대훈 2005).

외식 창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과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외식 창업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자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신금순 2002; 박정기 2002; 이요왕 2005; 손홍재 2006), 외식 창업자의 특성과 자질이 창업 성공에 관한 연구(박대섭 2003; 조형래 1994) 등을 연구하였으며, 홍성도(2001)는 기업이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아이디어 사업 목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Timmons(1999)의 모델을 바탕으로 영업 환경에 살아 남기 위한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대구·경북 지역적인 한계는 있으나, 창업과 관련된 연구가 제한적이고 편협되어 외식 창업이 증가하게 된 동기가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식업 창업 자금 및 점포 특성이 창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둘째, 외식업 창업 자금 및 점포 특성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창업 동기에 유의적인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셋째, 외식업 창업자 및 신규 창업자들에게 창업 성공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외식업 창업 자금에 대한 선행 연구

기업의 경영 활동은 자금의 순환 과정을 통하

여 이루어지며, 자금 관리는 이익 못지 않게 중요성이 인식된다. 즉,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에만 기업의 유지·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자금이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지불 수단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자금의 개념도 달라진다. 좁은 의미로는 현금 및 예금, 당좌자산 또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운전 자본(net working capital: NWC)을 나타내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는 유동자산의 합계인 총운전 자본(gross working capital: GWC)을 나타내기도 한다(김철중 2004).

정진우(2008)는 자본은 사업 초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자본금이다. 자금이 곧 무기이다. 자금은 창업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자금의 크기나 자금 수요의 패턴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진행 과정을 거치면서 자금 수요도 달라질 것이고, 이와 같이 창업 자금을 확보하는 창업에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자가 의도하는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가장 필요하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창업자가 실패하는 요인으로는 경영 관리 미숙과 시장 확보의 실패 또는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창업 자금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공적인 창업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창업 자금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박정기 2001).

정수원(2001)은 창업자들은 빠듯한 창업 자금 아니면 오히려 적정 규모에 모자라는 창업 자금

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창업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창업 자금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병주(1999)는 창업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언제 필요하게 될지 그리고 자금 문제와 창업자의 의사 결정 선택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신금순(2002)은 창업 자금의 조달은 업종, 규모, 생산방법, 사업자의 위치 등이 결정되었을 때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조달 방법에는 창업자 스스로 보유한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과 대외적인 신용을 바탕으로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타인 자금이 있다. 창업자는 창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얼마 정도인가를 산정하고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자금 및 타인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검토해야 한다. Lussier(1996)은 창업사업체는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는가는 그 사업체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창업한 사업체들은 자금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금 관리상의 작은 실수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창업자들이 자금 통제를 소홀히 하거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효율적인 자금 통제를 저해하고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창업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투입했을 때 그 사업체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성장 가능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 자금 조달

〈표 1〉 창업 자금 조달 방법 및 소요 자금

창업 자금 조달	자기 자금	창업 자금: 예·적금, 퇴직금, 유가증권, 부동산 매각 자금
		현금 출자금: 창업자·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사업자, 차량, PC 등)
	타인 자금	투자자 자금: 후원금, 주주 출자금, 동업자 자금, 기관투자자 자금
소요 자금	소요 자금	정책 자금: 소상공인지원 자금, 근로복지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금융기관: 은행, 신용금고, 보험사, 리스 사금융: 친인척 동료, 사채
소요 자금	소요 자금	시설 자금: 토지, 건물, 기계 등의 설비 구입 및 임차 자금
		운전 자금: 사업 운영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경비

자료: 박정기 등, 창업과 취업전략, 2001, p.204.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조달된 자금을 적절하게 운용한다면 기대하는 수익을 실현함은 물론 사업체를 성장·존속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창업하는 사업체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 외식업 점포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

외식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포의 입지 즉 위치이다. 점포의 위치가 좋으면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지만 위치가 나쁘면 사업가가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외식 점포의 위치는 고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고객이 점포에 직접 와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소매점 사업에 있어서 점포 위치는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점포는 거리, 교통 등의 면에서 고객으로부터 가까워야 하며, 사람이 많이 사는 곳,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점포 위치는 경쟁의 주요 수단으로 상품의 종류, 가격, 광고 등에 있어서 유사하거나 우월한 방법을 도입할 수 있으나, 점포의 위치는 모방하기 어렵다. 점포는 일단 결정되어 개점하게 되면 그 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또, 사업을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점포를 옮기는 경우에도 기존의 고객들이 다시 찾아 올 수 있으므로 점포는 소매점 사업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박춘엽·양갑모 1988).

점포 입지(store location)의 결정은 전략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점포의 입지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소비자가 직접 방문함으로써 거래가 성사되는 소매업에 있어서 사업의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점포의 입지는 경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점포들 사이의 경쟁은 시설, 가격, 서비스 등을 동원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셋째, 점포 입지의 결정은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단 결정하게 되면 입지 변경을 시도하기란 쉽지 않으며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이요왕 2005).

점포 입지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 계획, 소매기업의 진출 및 개점 계획 등과 관련 된 정보 수집·분석·평가하는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리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점포와 비교되는 건물의 크기, 매장의 넓이, 건물의 특이성, 식별 용이성 등과 같은 건물 전체의 구조 계획, 주차시설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종업원의 의욕, 서비스 등의 판매 방식, 판매 촉진·광고 등은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조달 능력은 점포 입지의 경쟁력 확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외식업 창업 동기에 대한 선행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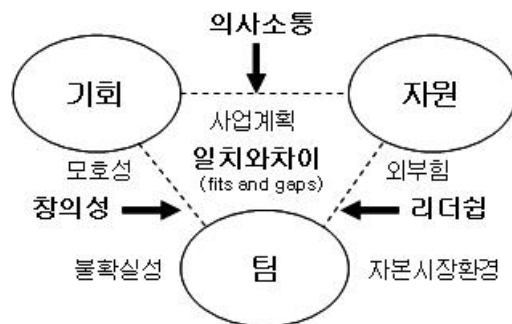
창업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전통적인 접근방법 중의 하나가 전형적인 창업자의 배경적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인구통계적인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심리적 특성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을 받아 왔다. 창업 동기는 업체 설립을 범주화하고 사업체 성과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사업체를 창업한다.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명시하며, 누구나 자유로이 새로운 기업(또는 개인사업체)을 개설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윤관호 등 2007). 기업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창업 동기는 자체의 성공 여부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 기업의 특성이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Morrison(1999)은 창업가는 지적이고 분석적으로 위기를 잘 관리하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강한 도덕을 지니고 있으며 사업가의 기질을 지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Timmons(1994)은 “창업이란 창업자(창업 팀), 자원 욕구, 기회 인식이라는 3가지 창업 요소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인간의 가치 창조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기존 사업을 인수한 다거나 사회적으로 기회와 아이디어 습득이 용이한 사업의 개시(start up business)의 경우는 창업(enerpreneurship)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Lee & Peterson(2000)은 건전한 사회 환경, 좋은 재정적 지원 상태 그리고 창업자들의 질 좋은 경험 등을 기초로 하여 동기 부여된 창업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 창업자들이 속한 국가가 창업 정신을 함양시키고 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는 국가적 창업 문화가 없이 경쟁력 있는 창업가 등이 배출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논의되는 심리적 특성 변수인 성취 욕구나 독립적인 성향의 경우 여성 창업가와 남성 창업가 간에 차이가 없으며(Chaganti 1986), 위험 감수 성향(Master & Meier 1988)도 남성 기업가들과 유사점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남성 창업가와 여성 창업가 간에 차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Gatewood et al.(1995)는 창업 초창기에는 창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과다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함과 동시에 심리적인 강인함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 당시의 상황적 어려움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차이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Hirish & Brush(1986)은 기업 소유자가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거의 배타적인 요인에 의해서 “꿈의 실현,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의 사용, 일의 경험이나 훈련의 연속성, 독립에 대한 욕망,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등에 대한 욕구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Breen(1995) 등에 의하면 벤처 기업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로서 승진 기회의 상실과 고용에 관련된 동기 요인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실현, 도전 의식, 최고경영자의 지위를 통한 성의 실현, 가족 문제 개선을 위한 유연성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다. 최근 들어서는 창업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여성 벤처 기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 대부분이 남성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측정도구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여성 기업가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Buttner 2001).

Scheinberg & MacMillillan(1998)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 개발 욕구(need for development)는 창업 동기 요인으로 입증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개발 욕구는 실제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지적되었는데, 기존 직장에서의 성장 한계와 더불어 보다 많은 학습의 기회를 얻고자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Timmons (1999)는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회, 창조적 자원, 창업가적인 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창업의 과정은 자금, 전략, 네트워크, 팀도 아닌 기회로부터 시작을 한다. 대부분의 진정한 기회는 재능이나 팀의 역량이나 가용 자원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 팀의 역할은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환경 속에서 창업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잘 조합하는 것이다. 그는 3가지 원동력간의 균형을 중요시하면서 원동력들의 품질과 그들 간의 조화와 균형의 수준을 조직이 이해하게 하기 위한 언어나 코드로 나타내는 것을 창업 계획서의 역할로 제시하였다.



〈그림 1〉 창업자의 특성.

Timmons, J. A. (1999):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21st century, Homewood, Illinois, Irwin-McGraw-Hill, Fifth Edition: 402-437.

Ⅲ.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 모형과 모형변수

1)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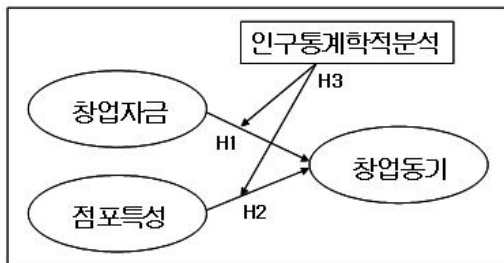
본 연구는 창업의 준비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 연구의 기본 모형은 Timmons(1999)의 연구 모형을 기초로 대구·경북 지역 음식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외식 창업 자금 및 점포 특성이 창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 모형에 사용한 모형변수는 기존에 연구된 국내·외 창업 동기 및 자금, 점포와 관련된 연구 논문과 신규 창업자들의 설문지 조사에 의해 설계하였다. 본 연구 모형은 <그림 2>와 같이 창업 자금과 점포 특성이 창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2) 모형변수

본 연구 모형에서 신규 창업 시 자금과 점포 특성에 따른 창업 동기에 미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영향변수(독립변수)와 성과변수(종속변수)의 연구 분석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변수

창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수로는 창업 자금과 점포 특성에 관한 변수로서 세부적 요인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 연구 모형.

① 창업 자금

기업 경영의 자금 순환 과정, 창업 자금의 확보 등의 변수 측정으로 김철중(2004), 박정기(2001, 2002), 자금 문제와 창업자의 의사 결정 등의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Lussier(1996), 조병주(1999), 정수원(2001), 신금순(2002) 등의 선행 연구에 의하여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② 점포 특성

외식 점포 위치에 대한 성패, 입지에 대한 여건 등의 변수 측정으로 박춘엽·양갑모(1988), 점포의 입지는 결정 방법, 점포 입지 경쟁 등의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요왕(2005) 등의 선행 연구에 의하여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2) 성과변수

상기의 변수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성과변수로 창업 동기에 관한 변수로서 세부적인 요인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창업 동기

창업 성과에 다양한 동기, 창업 요소의 창조 활동, 건전한 창업 문화 등의 요인들과 관련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윤관호 외(2007), Timmons(1994), Timmons(1999), Lee & Peterson(2000), 성별에 대한 차이 무시, 심리적인 변수 측정, 창업 성사에 대한 노력, 창업의 욕구 등의 요인들과 관련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Master & Meier(1988), Gatewood et al.(1995), Hirish & Brush(1986), Breen(1995), Buttner(2001), Scheinberg & MacMillillan(1998) 등의 선행 연구에 의하여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은 외식 창업 자금 및 점포 특성에 따른 창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의 상관계수로서 본 연구 분석을 위한 모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2. 연구 가설 및 측정도구

1) 연구 가설 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Timmons(1999)의 연구 모델을 기초로 창업 자금과 점포 규모에 따른 창업 동기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들의 주요 내용은 창업 동기에 따라 창업 자금과 점포 특성이 창업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다.

- 가설 1. 외식업 창업 자금은 창업 동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외식업 점포 특성은 창업 동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외식업 창업 자금 및 점포 특성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창업 동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은 Timmons(1999)의 모델을 기초로 기존의 선행 연구와 음식업 중앙회 기존 영업주 및 먹거리 활성화 관련 교육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 검정을 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창업 동기 변수에 대한 10개 문항,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창업 자금 변수에 대한 10개 문항, 점포 규모에 대한 10개 문항, 일반 사항인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법(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을 사용하였다.

IV. 실증분석 및 가설검정

1. 연구방법 및 자료의 특성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절차는 논문주제의 선정 및 연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설문조사 대상의 표본 크기와 그 범위를 선정하고 환경을 파악하였다. 표본

조사의 대상은 대구·경북 지역의 음식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회수된 설문지에 대하여 변수들 간의 요인을 추출하고, 선행 연구들에 의하여 필요한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회통계학적 모든 변수들에 대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의 신뢰도 계수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변수의 내용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요인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인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영향변수인 창업 자금과 점포 규모이며, 종속변수인 창업 동기의 영향력을 살펴 보기 위하여 T-검정(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2) 자료의 특성

본 연구의 범위는 기존 선행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대구·경북 지역 음식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통계적 자료처리를 통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8년 4월 2주에 걸쳐 각각 50부씩 5월 3주에 걸쳐 각각 50부씩 설문지 총 250부를 배포하여 23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내용 기재가 부실한 것과 누락된 10부를 제외한 총 220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요인분석 및 타당성 검정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알아보았으며, 이 분석을 통해 변수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각 요인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의 응답에 대한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의 판별 타당성과 집중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이론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20)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11	50.5	창업 자금	5천만원 미만	50	22.7
	여	109	49.5		5~7천만원	31	14.1
결혼 유무	기혼	158	72.1	7천~1억원	57	25.9	
	미혼	47	21.5	1억~1억5천만원	45	20.5	
	기타	14	6.4	1억5천~2억원	19	8.6	
학력	고졸	58	26.4	2억원 이상	18	8.2	
	전문대졸	101	45.8	점포 특성	10평 미만	7	3.2
	대졸	56	25.5		10~20평	28	12.7
대학원 이상	5	2.3	20~30평		65	29.5	
연령	20대	29	13.2		30~40평	48	21.8
	30대	65	29.5		40~50평	44	20.0
	40대	92	41.8	50평 이상	28	12.7	
	50대 이상	33	15	업종 선호도	한식	111	50.5
준비 기간	1년 미만	133	60.5		양식	33	15.0
	1~2년	62	28.2		일식	25	11.4
	2~3년	22	10.0		중식	18	8.2
	3~5년	2	0.9		기타	33	15.0
	5년 이상	1	0.5	합계	220	100.0	

2. 가설 검정

본 연구는 외식업 창업 자금 및 점포 특성에 따른 창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대구·경북 지역 음식업 경영자의 창업 동기의 결과를 위해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검정하는 *T*-검정(*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은 외식업 창업 자금을 따른 창업 동기가 달라질 것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세 개 이상 집단들에 대한 평균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좋은 상권에 대한 유의확률 0.015이고, 퇴직에 대한 유의확률 0.020으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F*값이 2,889, 2.734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창업 자금

에 따른 외식 창업 동기 중 5천만원 미만~7천만원대, 7천만원~1억원 미만의 창업 자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는 점포 특성에 따른 외식업 창업 동기가 달라질 것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성취욕과 미래의 안정성, 퇴직에서 유의확률 0.011, 0.009, 0.025으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F*값이 2,616, 3.034, 3.177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점포 규모에 따른 외식 창업 동기 중 20~30평 미만과 30~40평 미만의 점포 창업이 50% 이상을 나타내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된 두 집단 간

〈표 3〉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정 결과

요인	항목	요인값	Eigen value	Pct of Var	Cum Pct	Cronbach's alpha
F1 성취욕	나의 사업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534	4.648	15.49	15.49	.737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693				
	대인관계를 넓히고 싶어서	.763				
	타인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712				
F2 미래의 안정성	외식업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777	3.049	10.16	25.65	.661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478				
	향후 사업 전망이 밝아 보여서	.534				
	새로운 일을 찾고 싶어서	.442				
F3 생계형	나의 미래에 대한 안정을 위해	.482	2.023	6.74	32.40	.684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712				
	실패 후 마지막으로 창업을 하게 됨	.706				
F4 좋은 상권	외식업 실패로, 신규 아이템에 재도전	.681	1.901	6.33	38.74	.673
	자가 건물에 임대가 되지 않아서	.604				
	명예퇴직 이후 개인 창업	.670				
F5 퇴직	좋은 상권에 점포가 비어 있어서	.708	1.537	5.12	43.86	.642
	퇴직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664				
F6 지식 활용	회사 퇴직 후 창업	.754	1.396	4.65	48.51	.755
	자신의 노하우를 이용한 사업 진출	.694				
F7 진취적 활동	내가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싶어서	.533	1.274	4.24	52.76	.625
	현재 놓고 있는 상태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인 인 삶을 살기 위해서	.694				
	장사가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701				

〈표 4〉 창업 자기에 따른 외식업 창업 동기 차이분석 검정 결과

요인	창업 자금	평균	표준편차	M.R.T	F	p-value
좋은 상권	5천만원 미만	1.6467	.70441	-	2.889	.015*
	5천만원~7천만원 미만	1.4731	.61327	L		
	7천만원~1억원 미만	1.7719	.70192	-		
	1억원~1억 5천만원 미만	1.8148	.60950	-		
	1억 5천만원~2억원 미만	1.7895	.64989	-		
	2억원 이상	2.1852	.76886	H		
퇴직	5천만원 미만	1.9184	.77960	L	2.734	.020*
	5천만원~7천만원 미만	2.3871	.91933	-		
	7천만원~1억원 미만	2.3246	.91364	-		
	1억원~1억 5천만원 미만	2.3667	.88805	-		
	1억 5천만원~2억원 미만	2.5789	1.03095	H		
	2억원 이상	1.9444	.78382	-		

* $p < 0.05$.

n: Duncan 검중에 근거한 평균의 차이를 H>M>L로 구별하여 나타냄.

〈표 5〉 점포 특성에 따른 외식업 창업 동기 차이분석 검정 결과

요인	점포 규모	평균	표준편차	M.R.T	F	p-value
성취욕	10평 미만	3.6429	.97742	-	2.616	.011*
	10~20평 미만	3.8036	.58277	-		
	20~30평 미만	3.5692	.69387	L		
	30~40평 미만	3.7240	.54879	-		
	40~50평 미만	3.9318	.59884	-		
	기타	3.9643	.51691	H		
미래의 안정성	10평 미만	4.1714	.72506	-	3.034	.009**
	10~20평 미만	3.8571	.58590	L		
	20~30평 미만	3.9815	.47922	-		
	30~40평 미만	4.1708	.48639	-		
	40~50평 미만	4.1909	.51931	-		
	기타	4.2786	.54525	H		
퇴직	10평 미만	1.9286	.83808	-	3.177	.025*
	10~20평 미만	1.9107	.83946	L		
	20~30평 미만	2.0938	.74469	-		
	30~40평 미만	2.6042	.98908	H		
	40~50평 미만	2.3636	.99044	L		
	기타	2.2420	.80754	-		

* $p < 0.05$, ** $p < 0.001$, *** $p < 0.001$.

n: Duncan 검증에 근거한 평균의 차이를 H>M>L로 구별하여 나타냄.

의 평균차이를 검정하는 T-검정(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H3-1. 성별에 따른 외식 창업 동기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은 성별에 따른 외식업 창업 동기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생계형 및 퇴직 에서 유의수준 0.001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즉, 외식업 창업 동기 유형 중 성별에 따른 생계형, 퇴직에 관련되

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3-2. 연령에 따른 외식 창업 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은 연령에 따른 외식업 창업 동기 차이검증에 있어서는 생계형, 퇴직, 진취적 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0~49세 이하 연령대가 3가지 항목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39세 이하로 나타났다.

〈표 6〉 성별에 따른 외식업 창업 동기 차이 검정 결과

요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test	p-value
생계형	남성	2.6006	.87134	3.263	.001***
	여성	2.2508	.70879	3.270	
퇴직	남성	2.4955	1.06119	4.361	.001***
	여성	1.9862	.60269	4.371	

*** $p < 0.001$.

n: Duncan 검증에 근거한 평균의 차이를 H>M>L로 구별하여 나타냄.

〈표 7〉 연령에 따른 외식업 창업 동기 차이 검증 결과

요인	연령별	평균	표준편차	M.R.T	F	p-value
생계형	20~29세 이하	1.7011	.48259	L	9.679	.000***
	30~39세 이하	2.3333	.75691	-		
	40~49세 이하	2.6159	.80130	-		
	50세 이상	2.7071	.80690	H		
퇴직	20~29세 이하	1.7321	.71339	L	4.261	.002**
	30~39세 이하	2.1000	.75104	-		
	40~49세 이하	2.4348	.93825	-		
	50세 이상	2.4091	1.01900	H		
진취적 활동	20~29세 이하	3.5000	.80178	H	4.790	.001**
	30~39세 이하	2.8462	.81453	L		
	40~49세 이하	2.8696	.72578	-		
	50세 이상	2.9697	.71741	-		

** $p < 0.01$, *** $p < 0.001$.

n: M.R.T(Duncan's Multiple Range Test): Duncan 검증에 근거한 평균의 차이를 H>M>L로 구별하여 나타냄.

H3-3. 결혼 여부에 따른 외식 창업 동기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혼에 따른 외식업 창업 동기 차이 검증에 있어서는 생계형, 좋은 상권, 퇴직에서 기혼에 따른 공동 창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H3-4. 교육 수준에 따른 외식업 창업 동기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교육 수준에 따른 외식업 창업 동기 차이 검증에 있어서는 미래의 안정성, 생계형에서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졸업들이 전체

50% 이상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외식업 창업 자금 및 점포 특성에 따른 창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설문지를 통해 조사되었으며, 가설 검증 위해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 50.5%(111명), 여성이 49.5%(109명)으로 창

〈표 8〉 결혼 여부에 따른 외식업 창업 동기 차이 검증 결과

요인	결혼 여부	평균	표준편차	M.R.T	F	p-value
생계형	기혼	2.5992	.75691	-	38.142	.000***
	미혼	1.6667	.37429	L		
	기타	3.0714	.88847	H		
좋은 상권	기혼	1.8122	.70629	H	3.423	.034*
	미혼	1.5461	.59558	L		
	기타	1.5476	.51652	-		
퇴직	기혼	2.3987	.93373	H	9.654	.000***
	미혼	1.7717	.65580	L		
	기타	2.0714	.61573	-		

*** $p < 0.001$, * $p < 0.05$.

n: M.R.T(Duncan's Multiple Range Test): Duncan 검증에 근거한 평균의 차이를 H>M>L로 구별하여 나타냄.

〈표 9〉 교육 수준에 따른 외식업 창업 동기 차이 판증 결과

요인	교육 수준	평균	표준편차	M.R.T	F	p-value
미래의 안정성	중학교 졸업	4.0000	.44555	L	2.978	.020*
	고등학교 졸업	3.9345	.56987	-		
	전문대학 졸업	4.1425	.49495	-		
	대학교 졸업	4.2464	.53256	-		
	대학원 이상 졸업	4.0000	.58310	H		
생계형	중학교 졸업	2.8452	.92288	H	5.249	.000***
	고등학교 졸업	2.6552	.83763	-		
	전문대학 졸업	2.2063	.75614	-		
	대학교 졸업	2.2381	.70414	-		
	대학원 이상 졸업	2.0000	.23570	L		

* $p < 0.05$, *** $p < 0.001$.

n: Duncan 검증에 근거한 평균의 차이를 H>M>L로 구별하여 나타냄.

업이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13.2%가 20~29세 이하로 창업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기혼자 72.1%, 학력은 전문대졸이 45.8%, 업종 선호도는 한식 창업을 50.5%, 창업 준비 기간은 1년 미만이 60.5%(13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철저한 준비 없이 외식 창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점포 규모는 30평 미만이 45.4%, 창업 자금은 5천~1억원 미만으로 영세하며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각 7개 요인에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신뢰성 검증 결과 Cronbach's α 값이 .625에서 .755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은 외식업 창업 자금에 따른 창업 동기가 달라질 것에 대한 검증에서는 좋은 상권에 대한 유의확률 .015이고, 퇴직에 대한 유의확률 0.020으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F값이 2,889, 2,734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창업 자금에 따른 외식업 창업 동기 중 5천만원 미만~7천만원대, 7천

원~1억원 미만의 창업 자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창업 자금에 대한 부담이 많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가설 2〉는 점포 특성에 따른 외식업 창업 동기가 달라질 것에 대한 검증에서는 성취욕과 미래의 안정성, 퇴직에서 유의확률 0.011, 0.009, 0.025으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F값이 2.616, 3.034, 3.177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점포 규모에 따른 외식 창업 동기 중 20~30평 미만과 30~40평 미만의 점포 창업이 50% 이상을 나타내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설 3〉은 외식업 창업 자금 및 점포 특성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창업 동기에 유의적인 영향 관계에서는 생계형 및 퇴직의 유의수준은 0.001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즉, 외식업 창업 동기 유형중 생계형, 퇴직에 관련되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외식 창업 동기 차이검증에 있어서는 생계형, 퇴직, 진취적 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0~49세 이하 연령대가 3가지 항목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에 따른 외식 창업 동기 차이 검증에 있어서는 생계형, 좋은 상

권, 퇴직에서 기혼에 따른 공동 창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에 따른 외식 창업 동기 차이 검증에 있어서는 미래의 안정성, 생계형에서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들이 전체 50% 이상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외식 창업자는 새로운 메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하여야 하며, 자기가 선택한 직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이상 이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창업자들은 지금의 자기 위치를 재인식하고 향후의 흐름을 확실히 읽어야 한다.

V. 결 론

중소기업 창업 지원 대상에 외식업이 포함되고 최고 20억원까지 지원과 부가세의 제매입세율 10/110으로 상향 조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한 내용들이 발표되는 등 고무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외식산업은 서서히 암흑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된다. 수요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총 수요가 증가해도 점포의 매출이 줄어드는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창업의 동향을 보면 창업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또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디든 파고 들고 있다. 특히 외식업이 업종별 창업 선호도 1위를 항상 차지하고 있듯이 경쟁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므로 남보다 더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는 점포는 곧 망하는 점포가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외식산업은 관할 부처에 따라 분류가 다르게 운용되고 있어서 명확한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고객의 욕구 파악이나 기존, 신규 메뉴의 분석 능력과 데이터 등 자료 부족, 고객지향적인 메뉴 가치 창출 미비 등의 여건

과 노력이 부족하며, 이는 결국 외식업이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셋째, 창업 시 여유자금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계 자금을 의한 단기 계획 수립으로 한계점과 운영상의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창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의 현실을 볼 때 외식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인적 자원의 문제점으로 종사원의 직업윤리관이 정립되지 않아 잦은 이직과 교육, 훈련 부족 등으로 외식업의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 인재의 부족 현상을 들 수 있겠고, 인적 의존도가 높은 사업으로 고정비 지출이 심한 상황에서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지만 영세 외식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지켜가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문제가 많으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들어주어야 한다.

다섯째, 점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또, 중간관리자의 부족과 능력의 한계, 외식업 관련 법률, 세무, 행정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식자재와 인건비 등 원가의 상승 외에도 각종 세금 부담의 급격한 상승, 위생관리의 강화, 환경문제, 전문 인력의 부재, 외식 업체수의 급증으로 인한 과당 경쟁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창업자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다.

여섯째, 경영주의 의식 문제에 있다. 외식업이 식품 제조, 판매, 서비스 등의 복합산업으로 경영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업소의 메뉴도 요리할 줄 모르고 있고, 본인은 경영만 하겠다는 등 아직도 마인드가 부족한 창업자들이 많다. 최근 들어 정부기관 등에서 창업 교육과 현장 체험을 겸하는 좋은 강좌들이 있는데, 이를 좀 더 확대를 시켜 나간다면 안정적인 창업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가 보다 더 일반화되려면 선진국들의 외식 창업 동기와 국내의 외식 창업 동기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국내의 외식 브랜드 및 창업자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외식 창업 동기에 대한 연구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도출되어 앞으로 신규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강대훈 (2005) : 외식사업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2. 김철중 (2004) : 재무분석. 한국금융연수원, 390.
3. 박대섭 (2003) : 한국 외식 창업자의 특성과 자질이 창업 성공 및 권유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4. 박대섭 · 신충섭 (2006) : 외식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성공 및 권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7(1):202.
5. 박춘엽 · 양갑모 (1988) : 소매점창업과 사업성분석. 스포비즈니스, 47.
6. 박정기 (2001) : 창업과 취업전략. 대명출판사, 194.
7. 박정기 (2002) :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1.
8. 손홍재 (2006) :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9. 신창국 · 조현순 · 유희경 · 김수정 (2000) : 호텔회계원리. 형설출판사, 515.
10. 신금순 (2002) : 소자본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7.
11. 이요왕 (2005) :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7.
12. 윤관호 · 홍상태 · 이임정 (2007) : 창업실무. 청람출판사, 14.
13. 장대성 (1998) : IMF 시대의 한국인을 위한 신경영문화. 범아출판사, 54.
14. 전병길 · 최수근 (2003) : 레스토랑 창업론. 지구문화사, 21.
15. 정진우 (2008) : 예비 창업자와 프랜차이즈본사의 계약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14(1):40.
16. 조병주 (1999) : 창업을 위한 경영학 교육: 창업교육: 교육과정전개와 효과적인 교수방법. 22.
17. 조형래 (1994) : 창업인의 특성, 제품혁신성과 벤처 기업 성과간의 상황적 관계.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논문, 45.
18. 정수원 (2001) : 소자본 자연과 경영. 문영사, 65.
19. 홍성도 (2001) : 벤처 기업의 창업과 창업 경영론. 학문사, 73.
20. Chaganti R (1986) : Management in women-owned enterpris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4(4):18-29.
21. Gatewood EJ · Shaver KG · Garter WB (1995) : A longitudinal study of cognitive factor influencing start-up behaviors and success at venture cre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371-391.
22. Hisrich RD · Brush CG (1984) : The women entrepreneur: management skills and business problem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2(1): 30-37.
23. Lee Sang M · Peterson Suzanne J (2000) : Cultur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global competitiveness. *Journal of World Business* 35(4):401-416.
24. Lussier RN (1996) : A startup business success versus failure prediction model for the retail industry. *The Mid-Atlantic Journal of Business* 32(2):79-92.

25. Master R · Meier R (1988) : Sex differences and risk - 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1): 31-35.
26. Morrison Alison (1999) : Entrepreneurship: what triggers IT.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ch* 6(2):21-25.
27. Timmons JA (1994) :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Irwin McGraw-Hill, Illinois, Fourth Edition 78-80.
28. Timmons JA (1999) :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21st Century. Homewood, Illinois, Irwin-McGraw-Hill, Fifth Edition 402-437.
29. 외식식품경제 (2006) : <http://www.foodbank.co.kr>
-
- 2008년 8월 29일 접 수
 2008년 9월 21일 1차 논문수정
 2008년 10월 7일 2차 논문수정
 2008년 10월 14일 게재 확정